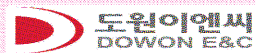


### 환경부 장관 賞

## 친환경 공법개발 녹색경영 승부수 '성공'

녹색경영부문



### 기존 건설부문 외 환경시설 시공사업 급성장

친환경 특허공법 개발 및 현장적용 활성화에 성공한 (주)도원엔씨(대표이사 성우종)가 '2012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에서 녹색경영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업내 환경연구 개발부서를 별도로 설치, 가동하고 있는 이 회사는 친환경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환경보전과 녹색성장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충남지역 중견 건설사다.

도원엔씨의 성우종 대표는 올해 '건설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한 건설분야 전문 CEO로써, 34년간 건설업에 종사해 오면서 노사상생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신념을 갖고 다양한 국책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2년 서산종합건설을 인수한 뒤 지금의 도원엔씨로 상호명을 바꾼 성 대표는 건설전선 노하우를 앞세워 공격적인 경영을 구사했다.

서울 지사 개설을 비롯, 기존 건축·토목·토건 면허에 산업설비, 전기공사업,

수질방지시설업 등 면허를 추가해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장했고, ISO14001, KS14001 등 품질 및 환경경영 인증도 획득했다.

일련의 노력들을 진행한 결과,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3-1공구를 비롯해 금강살리기 생태조성, 신보령 화력 1,2호기 등 국책 대형사업을 수주, 시공하면서 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신용평가 AAA를 받은 중견건설사로 정착했다.

또한 다년간에 걸쳐 친환경 특허공법 개발에 성공하면서 환경시설 시공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행복도시 수질복원센터, 클린에너지 시설 공사 수주, 부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등 환경시설 공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도원엔씨는 기업의 성장력은 근로자에서 온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을 펼친 결과, 2002년 대비 2010년 성장률 매출액 940%, 당기순이익 1,700%, 고용창출 450%를 달성, 글로



성우종 대표이사

벌 무대 진출 경쟁력을 갖췄다. 아울러 'DW2010-Project'라는 일차리창출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업무 자율화, 회사내 피고용자 없는 직원모두가 사업자이자, 대표자로서의 책임감과 모든 업무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율적인 기업모태와 성장을 실현한 모범기업이다. 성우종 대표는 "첨단 환경연구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녹색성장엔 맞는 중견건설사로 성장해 나가겠다"면서 "녹색경영 모범 기업으로 성장과 동시에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 등에도 만전을 기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다하도록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녹색기술 개발 박차... 해외서 기술력 정평

녹색기술부문



### 로타리킬른 소각로기술 '독보적'...고성장 기대

첨단 녹색기술로 환경산업을 선도하는 동원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박진희)이 '2012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에서 녹색기술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998년 설립된 동원엔지니어링(rotarykiln.co.kr)은 환경분야 및 산업설비 기계 설계제작, 대기방지시설업에서 두각을 보이는 '녹색기술 선도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기도 시화공단내 입주해 있는 이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녹색기술 보유 강소기업이다.

세계적 철강사인 포스코에 300톤/일 석회소성 Rotary Kiln을 제작한 동원엔지니어링은 현대제철에 400톤/일 석회소성 Rotary Kiln을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등 종합적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말레이시아 Lynas에 희토류 소성 Rotary Kiln 165톤/일 2기를 650만불에 수주, 설치공사를 완벽히 마쳤다.

또한 후주의 SMC사와 아연 생산후 발생하는 폐슬러지를 건조 및 입자화시켜 원료를 재이용하는 Dryer 및 Granulator를 350만불에 계약을 성사하고, 제작 중에 있다.

국내외 수주실적 증가에 따라 2012년 예상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30% 증가한 2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환경분야 기술개발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설 기술연구소(소장 문장수)에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 수출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녹색환경 기술개발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기존 보유기술의 강점을 살려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기술개발, 차별화된 기술 및 특허전략을 통해 한층 더 독자적인 기술우위를 달성할 전망이다.

정확수요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삼아 지구온난화 관련 기술,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 대기환경, 오·폐수처



박진희 대표이사

리, 폐기물 자원화, 오염도양 복원 등의 다각화 된 기술개발을 추진, 상용화를 꾀해 수익원을 다변화 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 플랜트 수출을 목표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과도 연구사업을 통한 환경 시설 수출전략을 해당국과 협의중에 있다.

박진희 대표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토로 해외진출도 넓혀가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녹색성장 선도'

에너지절약부문



인간과 환경을 경영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주)기술세상(대표이사 정문용)이 '2012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에서 에너지절약 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업체는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업체로 동종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는 R&D 집중도가 높고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술세상은 특히 에너지이용합리화, 저소비형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술세상은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선도하며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LED조명 등 기술개발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기술세상이 생산하고 있는 주력 제품은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이 적용된 단열재 천연 페인트, 에너지절감 보일러, 에



정문용 대표이사

너지절감 불연시스템 등이다. 우선 단열재 천연페인트는 도시고온화 방지 차 열성도료, 열 손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단열성 도료로 다기능 고성능의 친환경 특수페인트로 인기가 높다.

에너지절감 불연시스템은 불연처리 시 반영구적이며 목재의 굴곡이나 변형이 없고 내구성의 강도 역시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제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콘칼로리메타 KSF5660-1, 가스유해성 KFF-2271 성능검사를 통과했다.

에너지절감 보일러는 전력을 사용해 물의 자기 반응에 의한 열 발생시스템으로 대량의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기존의 다른 에너지 발생 장치에 비해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과 비용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열 발생시스템은 화석연료를 사용

을 발생시키고 열 보조율을 높이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에너지 장치 대비 최대 40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내는 장점을 갖고 있어 저탄소 친환경적 에너지 절감 제품으로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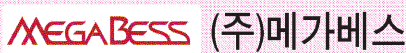
기술세상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에 해외사업본부

를 두고 있다. 정문용 대표는 "회사의 가치를 인간과 지구의 환경에 맞추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100% 친환경으로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력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BESS 분야 세계적 기업 도약

에너지기술부문



'2012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에서 에너지기술 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메가베스(대표이사 강정욱)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BESS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정이나 공장 등에 바로 전달하지 않고 대형 2차전지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전송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메가베스의 주력 제품인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로 오는 2030년 시장 규모만 1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경우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 2003년 'Grid2030' 국가 비전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그리드를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



강정욱 대표이사

질안정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메가베스의 우수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다. 제주도 스마트 실증단지에서 스마트 리뉴어블 분야의 현대중공업컨소시엄,

### 미국·일본·중국 등 '러브콜'... 2014년 매출 445억 목표

현재 이 회사는 미국과 일본에 법인을 설립, 영업 활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에서는 메가베스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고 Mayfair Capital에서 1,500만 달러 조인트 벤처 투자계약을 맺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메가베스가 양산하고 있는 BESS의 효과를 입증 받고 병원 등에 납품을 시작했다. 메가베스는 그동안 약 30곳의 병원에 7억여원 가량의 전력저장장치를 수출했다. 올해에는 일본 병원에 3MW급 대형 전력안정화장치와 심야 건설공사 투광등 전원장치 교체 프로젝트 수주도 성사되는 분위기다.

중국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할 BESS 연구를 2년째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책기관인 심양공업대 풍력기술연구소와 풍력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그리드망 보호를 위한 MW급 컨테이너형 BESS에 저장·공급하는 전력공

스마트플레이스분야의 한전컨소시엄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실제로 메가베스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ISO 9001 인증, 다수의 제품 특허 등록은 '기술집약형기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기술력을 무기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메가베스는 올해 11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외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내년 261억원, 2014년 445억원의 매출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회사 강정욱 대표는 "메가베스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은 KW단위에서부터 몇개는 MW에 달하는 대용량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신개념 에너지 운영 방안"이라며 "일본과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 만큼 수출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신재생 R&D 선도 국가 기술발전 앞장

에너지정책부문



혁신지향적 기업문화, 상생의 윤리경영, 기술기반의 지식경영을 펼치고 있는 (주)코앤티아이엔티(대표이사 박윤환)가 '2012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에서 에너지정책 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협력을 위한 제품개발, 차별화된 산업소재, 전자부품과 산업용품 제공서비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R&D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 제조업 인프라 산업의 중심에서 필요한 산업 소재와 기술정보 등을 해외딜러와의 제품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어 국가에너지 기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업체다.

코앤티아이엔티는 현재 산업·방산용 스위치를 APEM, NKK, HONEY WELL 등 미국 및 국내 대리점과 연계



박윤환 대표이사

를 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 회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해 산업·방산용 LED부터 생활가전용 LED를 비롯해 LCD와 LED 모듈과 관련된 다양한 유통라인을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기술 선도 역 '자랑'

해 공급하고 있다. 파나소닉과 국내업체의 TACT 스위치에 대한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즉,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갖추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코앤티아이엔티는 미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 거래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991년 용산구 원효로에 태동교역을 설립하고 반도체 유통을 시작 한 뒤 1996년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국 진출에 나섰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홍콩 기업과 파트너 체결을 맺은 뒤 회사 상호를 코앤티로 변경, 본격적인 해외 영업에 나섰다. 1999년 용산에 반도체 매장을 개설한 이 업체는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한 뒤 2008년 상호를 코앤티INT로 다시한번 교체, 제2의 부흥

하고 있는 것이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진디스플레이와 업무제휴를 통해 터치패널 창작 대행도 하면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박윤환 대표는 "해외 우수한 전자부품 및 반도체 브랜드와의 오랜 기간 동안의 완벽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미래 친환경 산업소재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전기, 전자 부품과 생산소재에 있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항구적이고 독보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자신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주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열린 기술 그룹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간과 환경' 최우선 모든 제품 100% 친환경 공급

너지절감 불연시스템 등이다. 우선 단열재 천연페인트는 도시고온화 방지 차 열성도료, 열 손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단열성 도료로 다기능 고성능의 친환경 특수페인트로 인기가 높다.

에너지절감 불연시스템은 불연처리 시 반영구적이며 목재의 굴곡이나 변형이 없고 내구성의 강도 역시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제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콘칼로리메타 KSF5660-1, 가스유해성 KFF-2271 성능검사를 통과했다.

에너지절감 보일러는 전력을 사용해 물의 자기 반응에 의한 열 발생시스템으로 대량의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기존의 다른 에너지 발생 장치에 비해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과 비용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열 발생시스템은 화석연료를 사